[ 12월 10일 점심시간 ]

“......오늘도 불고기였네.”

입에 남은 불고기의 지긋지긋한 간장 맛에 아주 넌더리가 난다.

일주일에 두 번이나 나오는 건 너무하잖아. 일주일에 밥을 다섯 번 먹는데 거기서 두 번이 불고기라니.

영양사가 매점 아주머니 뒷돈이라도 받은 거냐고.

자판기에서 입가심용 음료수라도 사 먹어야겠다.

“아! 선배! 여깄었구나!”

자판기로 걸어가려던 참에 뒤에서 친근한 목소리가 들렸다.

“어, 소원이도 있네. 무슨 일이야?”

“몰라! 얘가 갑자기 오라잖아!”

“은혜 언니가 불러오라고 했어요!”

기차놀이라도 하듯이 채아람에게 줄줄이 끌려 교무실이 있는 층으로 올라갔다.

한 칸이 추가된 학생회 기차는 그대로 교무실로 쳐들어갔다. 그리곤 교무실에 남아 빵을 먹던 도래솔 선생님을 습격했다.

“으응!? 얘들아 무슨 일이야?”

“아앗!? 혼자 비겁하게 빵 먹는 게 어딨어요! 배신자!”

채아람은 문답 무용으로 도래솔 선생님 손목을 잡고 출발했다.

죄인처럼 끌려온 도래솔 선생님까지 데리고 나서야 기차는 종점인 학생회실에 도착했다.

“어머. 다들 일찍 왔네.”

학생회실에 미리 와있던 은혜 선배는 아크릴 칠판 옆에 앉아있었다. 칠판에 적혀있던 글씨는 숫자 하나가 바뀌어있었다.

[ 학생회 회의 제2회 ]

한 “나는 또 뭐라고. 학생회 일이에요?”

고 “그래. 후배에 관한 일이지만 모두한테 물어볼 필요가 있었거든.”

“먼저 본인한테 물어봐야지. 밤에 따라다니면서 바뀐 게 있어?”

“바뀐 거라면 어떤 거요?”

“이젠 미지가 무섭지 않다던가?”

“......어.”

“후배가 첫날 밤에 따라 나갈 때는 약간은 무서워했잖아?”

분명히 그랬다. 처음엔 다시 미지와 만난다는 생각에 되게 긴장하고 떨렸는데.

어느새인가 별로 두렵지 않아졌다.

“후후. 따라다닌 것만으로도 효과가 있었나 보네. 혹시라도 없었으면 걱정이었는데.”

은혜 선배가 안심한 표정으로 웃었다.

한 “제가 말했잖아요? 보통 파티면 경험치는 같이 들어오니까 걱정 안 해도 괜찮다고요.”

“......경험치?”

은혜 선배는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머리 위에 물음표를 띄웠다.

“네. 같은 파티 소속이면 누가 잡아도 경험치가 들어오거든요.”

채 “소원 언니! 그건 게임이고요!”

“맨날 뭐만 하면 게임으로 생각하는 버릇! 언니 게임 중독이에요!”

한 “주, 중독은 아니거든!?”

“그냥 RPG에선 경험치 분배되는 게 당연하니까 얘기한 거야!”

도 “소원아. 진짜 게임 중독 같아서 선생님도 살짝 걱정되려고 그래.”

한 “네에!? 래솔 선생님까지 무슨 소리예요!? 저 멀쩡하거든요!?”

도 “그…. 게임 중독 상담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교무실로 오렴.”

한 “그니까 게임 중독 아니라고요!”

투닥대는 셋을 무시하고 은혜 선배는 내게 말을 걸었다.

“그래도 후배가 직접 미지를 쓰러뜨린 건 아니라 걱정이네. 우리보다 영향이 적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

“아뇨.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어쩌면 소원이가 말한 게 맞을 수도 있어요.”

한 “거봐! 쟤도 게임 중독 아니라잖아!”

“아니. 그거 말고. 경험치가 들어온다고 했잖아.”

“어쩌면 그 말이 맞을 수도 있어요. 저번에 밤에 돌아갈 때 일인데요.”

얼마 전 밤. 학생회 활동을 마치고 돌아갈 때, 미지와 마주친 적이 있었다.

선글라스를 쓴 마냥 눈에 구멍이 커다랗게 뚫린 귀신. 나를 보고는 뛰어왔지만, 아무렇지 않게 따돌려버렸다.

지금 생각해보니 이상하다. 왜 나는 혼자인데도 무서워하지 않았지?

어쩌면 내가 쓰러뜨릴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조차 했다. 물론 위험할 것 같아서 싸우지는 않았지만.

채 “제가 미지랑 여러 번 싸웠을 때 느낀 거랑 같네요. 그냥 안 무섭다? 선배도 그랬죠?”

“응. 그런 느낌이었어.”

미지를 쓰러뜨릴수록 미지가 두렵지 않게 된다. 저번에 은혜 선배가 말했던 것과 비슷하다.

고 “직접 쓰러뜨리지 않았는데도 효과가 나왔다. 그렇다면 왜일까.”

“제가 만든 걸 써서 미지와 싸우니까. 그게 어떤 의미로 저도 싸웠다고 생각되는 걸까요?”

“으음. 모르겠네. 확실하지 않은 정보가 너무 많아.”

“당장은 후배가 문제없으니 괜찮지만 조금 걱정이야. 나와 후배의 생각 모두 추측에 지나지 않으니까.”

“혹시라도 변화가 있으면 바로 알려줘. 중요한 문제니까.”

고개를 끄덕였지만, 은혜 선배의 걱정은 기우 같았다.

한 “은혜 선배.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면 틀린다니까요. 간단하게 생각해요.”

“1번. 얘가 걸어준 아이템으로 버프를 받고 싸우니까 전투 참여로 여겨진다. 그래서 경험치가 들어온다.”

“2번. 애초에 파티니까 경험치가 같이 들어온다. 이 둘 중의 하나겠죠.”

“......그, 소원아.”

한소원의 말에 은혜 선배가 복잡미묘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다물었다.

몇 번이나 열렸다 닫히며 말을 고심하던 은혜 선배는 한소원에게 최대한 상냥한 웃음을 지어줬다.

“게임은 좀 줄이자?”